

「李春風傳」研究

안 창 수

<목 차>	
1. 서 론	4.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의미
2. 기존 업적의 검토	4. 1. 갈등의 전개 양상
3. 인물의 성격	4. 2. 비난과 동경의 검토
3.1. 춘풍의 성격	5. 어절소설파의 비교
3.2. 부인 김씨의 성격	6. 결 론

I. 서 론

『이춘풍전』은 1953년 장덕순에 의해 최초의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었으나,¹⁾ 그 뒤로는 한동안 이 작품에 대한 연구논문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이 작품에 대한 몇 편의 연구논문이 나오게 되었지만²⁾ 장덕순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가 각도를 달리하여 재론되고 있는 듯한 감을 주고 있다.

『이춘풍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이 작품이 진취적이고 유능한 여성을 통해 두능한 남성의 허위와 가식을 폭로 풍자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춘풍처를 통한 윤리규범으로 이 작품을 재단하기 때문이며, 남성과 여성의 우열관계로 이 작품을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작품 해석 방법은 유능하고 적극적인 여성을 드러내어 그 존재 가치를 고양시키려는 이조 여성들의 꿈이 작품화되었다는 데에서, 『정수정전』, 『홍계월전』 등과 『이춘풍전』을 동류의 작품으로 진주하기에 이르렀다.³⁾

1) 張德順, 「李春風傳」研究, 國어國文學 5집, 1953.

2) 河順敏, 「李春風傳」의一考察, 國際語文, 一輯, 1979.

崔淑仁, 「李春風傳」研究, 梨花語文論集, 第五輯, 梨大韓國語文研究所, 1982.

3) 張德順, 上揭論文, p. 67.

河順敏, 上同, pp. 219~223.

崔淑仁, 上同, pp. 90~92.

문학연구에 있어서 작자의 창작의도를 밝혀보는 일은 작품의 올바른 감상과 비평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춘풍전」은 춘풍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풍처를 드러내기 위한 이제까지의 연구가 과연 이 작품의 창작의도를 바르게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일이다. 특히나 傳記의 수법⁴⁾이 소설 작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고소설에 있어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연구는 작자의 창작의도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에 확인하여, 본고는 「이춘풍전」이 유능한 여성을 통하여 남성의 무능과 허위를 폭로하기 위한 작품이라는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쓰여진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이춘풍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업적들을 검토해 보는 데에서 본고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춘풍과 춘풍처의 성격을 추출해 보는 데에서 춘풍의 로맨티스트적인 성격과 춘풍처로 대표되는 현실에서의 윤리규범이 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분석의 요점이 될 수 있음을 밝혀 보았다.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의미에서 춘풍과 춘풍처가 벌이는 갈등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서 「이춘풍전」이 춘풍처로 대표되는 윤리규범에 의해 간단히 재단되어 질 수 없음을 밝히고, 「이춘풍전」의 창작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 보았다. 마지막 연결소설과 비교에서는 연결소설과 「이춘풍전」을 비교해 보는 데에서 「이춘풍전」이 유능한 여성을 통해 남성의 무능과 허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작품이 아니라는 견해를 겸증하여 보았다.

「이춘풍전」은 장덕순 소장본, 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필사본 그리고 국립도서관 소장본의 세 가지 필사본과 김영석 개작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석 개작본은 근년(1947년)에 개작된 것이므로 원전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지로 그 줄거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작본 이외의 필사본이 원전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제까지 알려진 필사본은 약간의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주된 줄거리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춘풍전」의 이본에 대한 연구는

4) 傳記의 수법이란 주인공의 출생과 성장, 죽음의 과정이 나타나는一代記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춘풍전」은 전기적 수법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기적 수법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가 부딪치는 문제들을 시간적인 순차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춘풍전」도 전기적인 수법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崔淑仁, 前掲論文, pp. 208~210.

보다 깊이있게 진전되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이왕의 업적을 토대로 하여 개작본 이외의 필사본을 모두 동류의 것으로 간주하고 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필사본을 그 대본으로 선정한다.⁶⁾

2. 기존 업적의 검토

이 章은 「이춘풍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업적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방향을 제기하기 위해 설정된다. 「이춘풍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작품발생의 연원을 추적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이들 중 작품발생의 연원을 추적한 연구는 다시 비교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판소리와의 상관성에서 고찰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비교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이춘풍전」을 중국의 설화집인 〈태평광기〉 소재의 「이와전」과 비교하여, 「이춘풍전」이 「이와전」의 영향을 입어서 나온 풍자소설이라고 보고 있다.⁷⁾ 또한 판소리와의 상관성에서 고찰된 연구는 「이춘풍전」의 문체가 3.4 조 내지 4.4 조의 율문체라는 점, 「이춘풍전」의 유형구조가 판소리의 서사구조와 일치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춘풍전」이 판소리에서 파생된 판소리 계통의 소설이라고 논증하고 있다.⁸⁾ 그러나 비교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연구방법론에서 오는 한계가 있고, 「이춘풍전」을 판소리 계통의 소설로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실증적인 자료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논문은 장덕순, 「李春風傳」研究⁹⁾가 있다.⁹⁾ 이것은 「이춘풍전」을 학제에 소개한 최초의 논문이기도 하며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내용과 유형의 측면에서 이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춘풍전」은 남성의 무능력을 폭로하고 진취적인 여성을 부각시

6) 본고에 인용된 문구는 모두 아세아문화사 필사본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이하 모두 주를 생략한다.

7) 金鉉龍, 韓中小說說話研究, 서울, 一志社, 1976, pp. 388~391.

8) 金起東, “韓國小說發達史(中)”, 韓國文化史大系 10,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7, pp. 1133~1138.

河順轍, 前揭論文, pp. 77~78.

9) 張德順, 前揭論文.

처 부녀의 최고 미덕인 烈을 내세우려는 작품이라고 파악하였다.¹⁰⁾

이후 「이춘풍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은 없었으나 단편적인 언급은 격지 않았다.¹¹⁾ 이들은 거캐가 장덕순의 견해에 동조하는 것이었으나 「이춘풍전」이 춘풍의 처를 통하여 이조 말엽의 몰락한 양반들의 위선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폭로하는 풍자소설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이춘풍전」이 갖고 있는 문학적 가치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데에서 주목을 끌고 있지만, 춘풍처를 통하여 춘풍의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는 데에서, 장덕순이 이 작품을 분석하여 시도했던 여성 중심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고 있고 또한, 「이춘풍전」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라는 데에서, 작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동반하고 있지 못해 논의가 피상적으로 흐른 듯한 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아쉬움은 근년에 「이춘풍전」에 대한 몇 편의 연구논문이 나오게 됨으로써 다소 해소되고 있다. 그 하나는 “「李春風傳」의 一考察”이란 논문이다.¹²⁾ 이것은 「이춘풍전」에 대해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종망라하여 다루고 있는 데에 그 특색이 있지만 이 작품에 대한 이제까지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있는 데 머무르고 만 감이 있다. 「이춘풍전」에 대한 또 하나의 논문은 “「李春風傳」研究”라는 것이다.¹³⁾ 이것은 「이춘풍전」에 대한 사회사적, 분석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이조 후기의 사회상, 시대상을 여러 모로 살펴보는 한편 춘풍과 춘풍처의 관계를 분석심리학의 이론으로 해명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춘풍전」을 “이조 후기의 비합리성에 기인한 사회적, 제도적으로 우세한 우위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무능한 남성이 유능한 여성에게 그 허위와 가식을 폭로 풍자당한 작품”¹⁴⁾으로 해석하였다.

10) 張德順, 上同, pp. 2~5.

11) 金起東, 上揭論文.

———, 李朝時代小說論, 三友社, 1977, pp. 476~480.

金一烈, “古典小說에 나타난 家族意識”, 東洋文化研究, 一輯, 慶大, 1974, p. 87.

蘇在英, “韓國諷刺文學의 樣相”, 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p. 308.

李御寧·鄭炳昱, 古典의 바다, 玄岩社, 1977, p. 265.

12) 河順轍, 前揭論文.

13) 崔淑仁, 前揭論文.

14) 崔淑仁, 上同, p. 228.

이상으로 「이춘풍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업적을 개괄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보면 「이춘풍전」의 작품분석을 목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문제의 촍검은 「이춘풍전」이 춘풍의 처를 통하여 춘풍의 무능력과 허위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춘풍처로 대표되는 윤리규범에 의해 이 작품을 보기 때문이며, 능력있는 아내와 무능한 남편이라는 우열관계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춘풍전」은 그 제목이 뜻하는 바처럼 춘풍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고 작품 또한 춘풍의 행위를 따라가며 전개되고 있다.¹⁵⁾ 그러므로 「이춘풍전」을 윤리규범에 의해 재단할 때 춘풍이 갖는 이 작품에서의 가치가 왜곡되거나 미처 드러나지 않게 되고, 남·여의 우열관계에 의해 재단할 때 「이춘풍전」은 여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 된다.

이와 같은 데에 착안하여 볼 때 「이춘풍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채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능력있는 아내와 무능한 남편이라는 기존연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춘풍의 정당한 가치를 밝혀주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인물의 성격¹⁶⁾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本 欸의 기존연구에 의하면 「이춘풍전」은 여전 신장을 위한 자료로 회생되어 그 가치가 왜곡되거나 미처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작품의 올바른 창작의도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비소화되어 있는 춘풍의 정당한 가치를 밝혀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의 기초 작업은 춘풍과 그 아내의 성격을 규명해 봄으로써 성취될 것이며, 논의의 출발은 춘풍과 그 아내의 생각을 훑어보는 데에서 시작한다. 먼저 춘풍은

“너 말 자네 드려보개 출 잘 먹든 니티박은 노자작 임루비로 미일장휘 노라스
되 할님학자 다 지니고 뛰천일수 원두표는 잡기울 방탕한여 쇼연의 뉴명한기로

15) 이것은 「이춘풍전」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4.1. 갈등의 전개양상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16) 여기에서의 인물연구는 춘풍과 춘풍처에 한한다. 논의를 춘풍과 춘풍처로 한시키는 것은 이 작품에 나타나는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논의를 좀 더 선명하게 전개하기 위함이다.

너총의 잘 되여서 정승채정의 되여스니 일노 두고 불진덕 잡기 쥬석 도와하기
장부의 할 빠라 나도 일 허 논일마다 너총의 일 품피야 후세의 전할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춘풍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남조가 세상의 나에 둔무간의 힘을 써서 춘당덕의 과거보아 임신양명한 연후
의 일 흄을 후세에 두눈거시 셋엿호 이리여날 그리도 못할진덕 치산을 놋처 말고
부모 도업을 직하여서 조손의 전장호고 부부 두리 종신토록 하이 평생 도활시고
부지도 공명인니 그것을 마드호고 인녁은 웃지 헤여……”

「이춘풍전」의 발단부에 나타나는 춘풍과 부인 김씨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들의 행위를 결정지워주는 근거가 되며 작품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본다면 춘풍은 “노자작 임무비로 미일 장훼”하고 “잡
기을 방탕히 헛”은 개인적 향락과 아울러 “할님학사 다 지니고 정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형태라 보고 있다. 이에 비해 부인 김씨는 “부
지도 공명인니 부모 도업을 직하여서 조손의 전장호고 부부 두리 종신”하
는 가정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색잡기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춘풍과 부인 김씨의 생각
은 서로 공존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춘풍전」은 춘풍과 춘풍
처의 상호 대립적인 욕망이 어떻게 전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에 입각하여 「이춘풍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가) 춘 풍

1. 춘풍이 주색잡기로 놀아나다.
3. 재산을 탐진하고 아내에게 가사를
맡긴다.
5. 평양장을 떠나다.
7. 추월에게 돈을 다 털리고 종이 되
어 고초를 겪는다.
9. 회계비장의 도움으로 금의환향하다.
12. 부색이 탄로나다.

(나) 아 내

2. 방탕한 남편을 말리려 하다.
4. 남편에게서 각서를 받아내고 집을 일
으키다.
6. 장사를 떠나는 남편을 만류하다.
8. 회계비장으로 빙장하여 남편을 구출한
다.
10. 돌아온 남편에게 구박을 받는다.
11. 회계비장으로 빙장하여 남편의 부색을
드러낸다.

(가)는 춘풍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정리한 것이며 (나)는 춘풍의 처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1-12까지는 작품에 나타난 사건을 순서
대로 정리한 것이다.

3. 1. 춘풍의 성격

(가)는 춘풍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정리한 것이므로 우리는 (가)에서 춘풍이 벌이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춘풍은 주색잡기란 크게 출세하려는 남자가 거쳐가야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으나 재산만 텡진하게 됨으로써 그의 이상은 좌절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재산관리권을 아내에게 이양한다는 수기를 써주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에게 금치산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 덕으로 다시 집이 윤택해 지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출세욕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이십전에 손지호 일 통입골슈 이달아”서 아내에게 써 준 수기도 일소에 부치고 평양장사를 떠나게 되지만 평양으로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모두 털리고 추월의 종이 되어 고초를 겪게 된다. 평양에서 고생을 하던 춘풍은 천신만고 회계비장의 도움을 얻어 금의환향하게 되지만 집에 돌아 온 춘풍은 평양에서의 자기 행색을 숨기고 아내를 구박한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아내에 대한 반발이며 자신이 주색잡기와 출세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임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춘풍의 이같은 허풍은 아내에 대한 박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를 참지 못한 아내로부터 본색이 날낱이 드러나게 되는, 참담한 경지에 빠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다면 춘풍은 개인적 향락과 출세를 모두 이루려는 삶의 형태를 쫓아 행동하지만 연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풍의 연속적인 실패와 좌절은 「구운동」의 양소유와 비교할 때 한결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구운동」의 양소유도 춘풍과 같이 부귀공명과 입신양명에 의한 향락과 출세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소유는 그의 이상과 현실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춘풍은 연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함으로써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볼 때 「구운동」이 남성들의 이상적인 삶의 형태에 대한 동경의 문학이었다고 한다면 「이춘풍전」은 그러한 삶의 형태에 대한 비판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향락과 출세를 병행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이며 그럼에도 계속 그같은 삶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자기파괴에 이르게 된다는 현실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춘풍은 현실의식을 외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형

태를 쫓다가 되풀이하여 좌절을 겪고 있다. 결국 춘풍은 향락과 출세를 병행시키려는 삶의 형태를 쫓아 실패와 좌절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이상과의 거리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로맨티스트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3. 2. 부인 김씨의 성격

(나)는 김씨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정리한 것이므로 춘풍처의 행위를 통하여 그녀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내 김씨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주색잡기로 놀아나는 남편의 행각을 말려야 하는 고난에 처하게 된다. 이 최초의 고난은 남편이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림으로써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김씨는 극한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남편에게 수기를 받아 내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집안일 일체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다음 집안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고난을 극복한다. 그러나 남편은 호조에서 돈을 얻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이것은 김씨에게 닥친 새로운 고난의 시작으로 평양으로 간 남편이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모두 털리고 그 집 종이 되어 고생을 하게 됨으로써 김씨의 고난은 다시 고조된다. 이 고난에 대해 김씨는 남편의 허랑함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이웃집 참판댁과 사귀어 그 힘을 빌어 회계비장이 된 다음 남편을 구하고 앓았던 돈도 되찾게 됨으로써 고난을 극복한다. 그러나 남편이 계속 정신을 못차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를 박대하자 김씨는 또 한번의 고난에 처하게 된다. 이에 김씨는 다시 회계비장으로 변장하여 남편의 허위를 폭로시킴으로써 남편의 잘못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미게 된다.

이로 본다면 김씨는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하는 남편의 행각에 의해 계속적인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에 의해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씨는 현실에의 윤리규범에 충실했기에 춘풍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남편의 잘못을 일깨울 수 있었다. 따라서 김씨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줄 아는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남편에 의해 고난을 겪지만 남편을 증오하지 않고 그가 처한 어려움을 구해 주는 포용력 있는 여인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춘풍과 부인 김씨의 성격을 규명해 보는 과정에서 로맨티스트인 춘풍과 이성적인 춘풍처의 성격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작품을 남·여의 우열관계에 의해 파악할 때 춘풍의 로맨티스트적인 매력은 감춰지고 연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되풀이하는 그의 무능과 허위만이 강조될 것이며 이에 비해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춘풍처의 유능하고 적극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이춘풍전」의 가치는 능력있는 아내와 무능한 남편이라는 단순한 도식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로맨티스트인 춘풍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각시켜 주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춘풍처는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주색잡기와 출세를 같이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현실에서의 윤리규범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춘풍의 로맨티스트적인 성격의 가치와 춘풍처로 대표되는 현실에서의 윤리규범이 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추적해 보는 것이 「이춘풍전」 분석의 요점이 될 수 있다.

4. 갈등의 전개양상과 의미

本章에서는 춘풍과 김씨가 벌이는 갈등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는 데에서 춘풍이 춘풍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인물이 아님을 밝혀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춘풍전」이 춘풍처로 대표되는 현실에서의 윤리규범에 의해 간단히 재단되어질 수 없는 까닭을 밝혀보려 한다. 오히려 「이춘풍전」의 가치는 윤리규범에서 벗어나는 춘풍의 행위에 의해 찾아질 것으로 보아 춘풍에 대한 비난과 동경이라는 이질적인 요소의 공존 현상을 검토해 보는 데에서 「이춘풍전」의 창작의도와 가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4.1. 갈등의 전개양상

前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춘풍은 주색잡기와 출세를 병행시키려는 생활 형태를 주장하고, 김씨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색잡기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는 부인과 춘풍의 갈등은 일어난다. 이제 이들이 벌이는 갈등의 전개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갈등의 시발은 춘풍이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하는 데에서 일어난다. 김씨는 주색잡기로 폐가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춘풍의 행각을 말리지만 춘풍은 오히려 주색잡기 모르고도 폐가한 사람들과 주색잡기 즐기고도 출

세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들의 첫 번째 갈등은 춘풍이 재산을 탕진하여 집안 재산관리권을 아내에게 일임하고 김씨는 춘풍에게서 재산 관리권을 이양받아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해결된다.

그러나 춘풍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게 되자 이들의 두 번째 갈등이 일어난다. 춘풍은 아내 덕으로 집안이 다시 윤택해지자 “마암이 교만하여 이전 헝실 결노느”게 되어 호조에서 이천냥을 빌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려 한다. 이런 춘풍에 대해 아내는 평양은 변화한 곳이라 인심이 고약하니 의식적정을 모두 자기에게 맡기고 평양으로 떠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그러나 춘풍은 말리는 아내의 “머리 턱을 이리저리 갈나 잡고 두다려” 놓고 평양으로 떠나버림으로써 그들의 갈등은 심화된다. 이같은 이들의 두 번째 갈등은 춘풍이 평양에서 기생 추월에게 돈을 다털리고 그 집 종이 되어 고난을 겪는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즉 춘풍은, 추월이 돈만 털어 먹고는 자기에게 등을 돌리자, 추월의 의리없음을 탓하는 한편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고향의 처자를 그리워한다. 또한 서울에서 춘풍이 물박한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는 춘풍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자, 춘풍에 대한 그녀의 원망은 그대로 추월에게로 옮겨진다. 그래서 남편을 구출하여 부부 동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회계비장으로 변장하여 춘풍을 구출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갈등은 해결된다.

그러나 평양에서 돌아온 남편이 부인 김씨를 박대하자 이들의 세 번째 갈등이 일어난다. 즉 평양에서 돌아온 춘풍은 음식이 형편없다고 하며 자기를 정성껏 맞이하는 아내를 구박하여 모처럼 되찾은 가정의 행복을 즐기려는 아내의 의도를 배반한다. 이에 김씨는 다시 회계비장으로 변장하여 춘풍의 잘못을 깨우치고 부부가 화합함으로써 이들의 세 번째 갈등도 해결된다.

이상으로 춘풍과 춘풍처가 벌이는 갈등의 전개 양상을 살펴 본 결과 「이 춘풍전」은 하나의 갈등에서 야기된 사건을 다음의 갈등에까지 연결시키지 않고 그에 대한 해결을 동반시킴으로써 갈등과 해결이 교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갈등의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은 춘풍에 의해 가정의 행복이 위기에 처하고 이로 인한 춘풍처의 고난이 나타나는 상황이며 해결은 춘풍처에 의해 위기가 해소되고 춘풍의 좌절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갈등과 해결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 춘풍의 행위가 허망하다는 것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는 춘풍처가 찬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작자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춘풍의 행위가 허망하다는 것은 춘풍이 보여주는 윤리규범의 결합에 기인한다. 가정은 인간의 일차적 사회집단으로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조사회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가족 구성원의 의무에 대한 규범이 철저했던 사회였다. 가장에게 큰 편한을 부여한 것도 가족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으므로 주색잡기에 텁텁하여 가정의 안녕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춘풍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 하는 춘풍처가 상대적으로 찬양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이제껏 「이춘풍전」의 이해에 중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즉 윤리규범에 의해 작품을 분석할 때 춘풍처는 현실에서의 윤리규범에 충실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춘풍은 윤리규범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우기 춘풍처는 고난을 극복하여 가정의 행복을 지킨다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지만 춘풍은 실패와 좌절을 되풀이하는 좌절의 인물이다. 여기에서 춘풍과 춘풍처는 자연히 비교의 대상이 되며 이것은 결국 춘풍과 춘풍처의 우열관계로 쉽게 귀결된다. 이제까지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무려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힘을 과시한 여걸을 내세우려는 작품,¹⁷⁾ 현실에서 여암받는 여성의 꿈이 여성 우위로 나타난 작품,¹⁸⁾ 무능한 남성이 유능한 여성에게 그 허위와 가식을 폭로 풍자당하는 작품¹⁹⁾이라는 등의 해석을 낳게 된 것은 춘풍처를 통한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그 주장이 갖고 있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춘풍처에게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여 「이춘풍전」이 결국 춘풍처를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라는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17) 張德順, 前揭論文, pp. 2~5.
河順轍, 上同, pp. 90~95.

18) 河順轍, 上同, pp. 91~92.
崔淑仁, 上同, pp. 217~218.

19) 金起東, 上同, p. 1137.
蘇在英, 上同, p. 308.
李御寧·鄭炳昱, 前揭書, p. 265.
崔淑仁, 前揭論文, p. 228.

그러나 「이춘풍전」은 오히려 비소화되어 있는 춘풍의 행위와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다. 즉 갈등의 전개양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춘풍은 모든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사건발생의 담당자로 나타나 있고 춘풍의 처는 춘풍이 일으킨 사건을 수습하여 춘풍이 다음 사건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춘풍이 작품 전개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심인물임을 의미하므로 작품에서 차지하는 춘풍처의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춘풍이 결코 부수적 인물로 처리될 수 없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므로 「이춘풍전」은 이와 같은 윤리규범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없는 다른 면이 있다. 그것은 춘풍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에 대한 동경이다. 즉 춘풍은 주색잡기와 출세를 명령시킨다는 미명 아래 사회의 모든 의무 규범에서 벗어나 주색에 텁텁해 있다. 의무는 사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것이라면 주색을 즐기는 것은 이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춘당덕의 과거보기” “치산호기” “부모 도입을 적히기” “조손의 경장호기” “부부 두리 종신호기”와 같이 가장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의무규범에서 벗어나 주색으로 방탕하는 춘풍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춘풍에 대한 동경은 윤리의 규범으로 춘풍을 매장시키지 않고 살피와 좌절이 있을 때마다 그의 처를 통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해주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살피와 좌절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로맨티스트인 춘풍을 통해 우리는 순진할 정도로 폭력에 침착하는 그의 행위에 웃음을 보내기도 하며 주색잡기와 출세를 명령시킨다는 춘풍의 매력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춘풍전」이 춘풍처를 통한 윤리규범으로 간단히 재단되어 질 수 없는 소이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윤리규범에서 벗어나는 춘풍에 대한 비난과 동경 그리고 로맨티스트인 춘풍에 대한 매력으로 해서 「이춘풍전」은 비로소 문학작품으로서의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2. 비난과 동경의 겸토

소설에서는 윤리적 문체의식이 곧 작품의 구조가 되면서 소설적 진실성은 윤리적 의미를 본질로 삼는다고 했을 때,²⁰⁾ 주인공과 독자가 갖는 윤리적 유대관계는 소설의 성격을 결정지워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

20)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77, p. 124.

다. 「이춘풍전」에서 춘풍에 대한 비난과 동경은 윤리적 문제의식에 입각한 독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비난은 주인공인 춘풍과 독자의 윤리적 동질성이 깨어지는 데에서 오는 결파이며 동경은 윤리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데에서 오는 결파이다.

상당수의 고소설에 있어서 인물들의 절대적 행동 기준은 유교적 윤리규범이 된다. 이 경우의 소설에서 주인공과 독자는 주인공이 내세우는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 윤리규범에 의한 윤리적 동질성을 갖는다. 독자는 주인공이 내세우는 유교적 윤리규범에 공감하며 그의 행·불행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독자의 흥미는 주인공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느냐에 집중되느니만치 인생에 대한 향락조차도 주인공에게 부차적으로 따라 붙는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주인공은, 임신양명과 아울러 몇 명의 절대가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기도 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갖는다.

이에 비해 「홍길동전」이나 연암소설 등에서 작품의 주인공은 당대의 윤리규범에 대항하면서 독자와 윤리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경우 독자는 주인공과 윤리적 동질성을 갖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양분된다. 주인공과 윤리적 동질성을 갖지 않는 독자의 수가 그렇지 않은 독자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당대의 윤리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작품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후대의 독자를 위해 死藏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작품은 윤리적 동질성을 갖는 후대의 독자에 의해 밟혀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정수정전」이나 「박씨전」과 같은 작품도 역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위를 주장함으로써 당대의 윤리규범에 대항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여성독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사장되지 않고 읽혀질 수 있었다.

춘풍은 주색잡기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가정의 행복은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의 윤리규범에 익숙한 독자와의 윤리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춘풍은 작품에서 “잡놈”으로 욕을 먹기도 한다. 고소설에 있어서 윤리규범을 벗어나 기생과의 향락을 즐기는 것이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이 외에도 「배비장전」이나 「三仙記」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인공과 독자는 윤리적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배비장전」과 「三仙記」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윤리기준은 「이춘풍전」의 그것과 相異하게 나타난다. 즉 배비장과 이춘풍²¹⁾은 인생에 있어서 향락을 거부하고 군자연

21) 여기에서의 이춘풍은 「이춘풍전」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삼선기의 인물이다.

하는 인물들이지만 독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향락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윤리관의 충돌로 유교적 윤리규범을 주장하는 주인공의 허위가 방자와 기생을 통해 하나씩 벗겨져 도덕군자의 허위와 가식이 만천하에 폭로된다. 독자의 흥미는 자신들과 윤리적 동질성을 갖지 않는 주인공의 허위가 하나씩 벗겨지는 데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춘풍전」은 독자와 윤리적 동질성을 갖기도 한다. 즉 춘풍은 윤리규범을 거부하는 인물로 나타나는데 이 점에서 춘풍은 독자와 윤리적 동질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춘풍이 덕답회되 자네 님 말 드려보게 그 말이 다 올타회되 이 암집이 갈쇠는 훌 자 술도 뜻 먹어도 돈 훌푼 웃 모호고 비우고개 니도명은 오십이 다되도록 죄식을 몰누스되 남의 집안 평성살고 탁골사는 먹풀이눈 뙠천잡기 몰누스되 슈천금 다 읊시고 서종의눈 굴미 죽어스니 이런 일을 불지라도 죄식잡가 아니 헛기로 갈 사는 빼 유눈이라.”

주색잡기 즐기고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주색잡기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없는 모순된 사회에서 사회가 부여하는 윤리규범이란 공허한 것이다. 주색잡기와 출세를 병행시키려는 춘풍의 행위는 이같이 모순된 사회에서, 가장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색잡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규범을 거부하려는 뜻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춘풍은 주색잡기에 탐닉하여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었고,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을 수 있었다. 모순된 사회에 대한 불만 이것은 이조 후기의 대다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공통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색잡기란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한번쯤 해보고 싶은 유혹을 주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모순된 사회의 윤리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과 주색잡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독자와 춘풍을 연결시켜 주는 윤리적 동질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춘풍전」에서의 독자의 흥미는 「배비장전」이나 「三仙記」에서처럼 춘풍의 허위나 가식을 벗기는데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규범에서 벗어나는 춘풍의 반복되는 행위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이춘풍전」은 주인공과 독자의 윤리적 동질성이 유지되는 면과 깨어지는 면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풍이 주색잡기를 합으로써 모순된 사회의 윤리규범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독자

와 윤리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데에서 독자와의 윤리적 동질성이 깨어지기도 한다. 즉 춘풍의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은 독자와의 윤리적 동질성이 깨어지는 데에서 오는 것이며, 윤리규범에 의해 춘풍을 매장시키지 않고 그 때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주색에 탐닉하는 춘풍의 행위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춘풍전」은 사회의 윤리규범을 거부하고 주색잡기와 출세를 명행시키려는 한 인물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춘풍과 독자의 윤리적 동질성이 깨어지는 데에서 가정의 행복은 파괴될 수 없다는 교훈적 측면을 제시하는가 하면, 윤리적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전개되는 춘풍의 행위는, 그의 로맨티스트적인 성격과 함께 「이춘풍전」의 흥미를 고조시켜 줌으로써, 이 작품이 단순히 윤리규범의 도식에 의해 전개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5. 여걸소설²²⁾과의 비교

이제까지 「이춘풍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본 결과 이 작품은 로맨티스트적 성격을 가진 춘풍이 모순된 사회질서를 거부하고 주색잡기와 출세를 명행시키려는 데에서 오는 실패와 좌절의 행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며, 유능한 여성을 통하여 무능한 남성의 허위를 폭로하기 위한 작품이 아님을 밝혀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이춘풍전」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는 과정에서 얻어낸 결과이어서 「이춘풍전」이 유능한 여성을 통하여 남성의 무능과 허위를 폭로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는 근거가 아직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유능한 여성을 통해 남성의 무능과 허위를 폭로하여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一群의 작품으로는 여걸소설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걸소설과 「이춘풍전」을 비교해 보는 데에서 좀 더 명확한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여걸소설이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 남성의 무능력과 허위를 폭로하고 있다는 데에서, 현실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꿈이 투영되어 있

22) 이와 같은 類의 작품들에 붙여진 명칭은 다양하게 있으나 本稿에서는 成賢慶, “女傑小說과 「薛仁貴傳」”,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1973에 있는 명칭과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다.

으므로, 문명 여권신장을 고취하기 위해 쓰여진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춘풍전」이 유능한 여성에 의해 남성의 무능력과 허위를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걸소설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여걸소설과 「이춘풍전」을 두루 비교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데에서, 서로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온 「정수정전」 「홍제월전」 「박씨전」의 세 편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국한시키기로 한다.²³⁾

여걸을 주인공으로 한 위의 세 작품은 초자연적이며 천상적 능력까지도 두루 포함한 능력을 가진 여성에 의해 인간적이며 지상적인 남성을 대조시켜 다루고 있다. 정수정과 홍제월은 천상의 인물인데 비해 장연과 보국은 지상의 인물이다. 박씨는 탁월한 도술의 소유자이나 이시백은 박씨와 같은 도술이 없다. 이처럼 여걸소설은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여성 우위가既定化된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미 기정화된 여성 우위는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남·여 주인공들을 전쟁이라는 같은 문제에 참여 시킴으로써 확실하게 증명된다. 정수정과 홍제월은 적군의 침입을 맞아 빼어난 지포와 용맹으로 백전 백승 적군을 물리치며 장연과 보국의 위기를 구해주는 등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장연과 보국은 정수정과 홍제월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실패와 잘못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인물로 나타난다. 박씨는 탁월한 도술을 가지고 이시백을 장원급제시키고 전쟁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비해 이시백은 박씨의 도술에 의거해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문제에 같이 참여시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능력을 대비시켜 여성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춘풍전」은 부인 김씨의 능력의 탁월함이나 여성 우위가 기정화되어 있지 않다. 춘풍과 춘풍처는 모두 범상한 일상적 인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춘풍은 주식잡기와 출세를 명행시키는 것이 보람있는 삶의 형태라 생각하고 있고, 춘풍처는 가정의 행복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23) 「이춘풍전」은 능력있는 아내가 남편의 허위와 가식을 폭로하고 있다는 데에서 종종 「정수정전」이나 「홍제월전」 「박씨전」과 등류에 속하는 작품으로 인정되었다.
張德順, 前揭論文, pp. 2~6.

金一烈, 上同, pp. 86~87.

河順澈, 上同, pp. 219~223.

崔淑仁, 上同, pp. 90~92.

하고 있다. 「이춘풍전」은 이와 같이 일상적인 두 인물의 이질적인 사고를 대비시켜 주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작품의 전개도 위의 세 현의 여결소설처럼 남편과 아내 또는 여성과 남성의 능력을 비교해서 그 우열을 가려내기 위한 의도에 의해 전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수정전」을 비롯한 위의 여결소설들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목적 이 남편에게 얹눌려 있는 아내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정수정전」과 「홍계월전」에서는 남현인 장연과 보국이 수정과 계월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로서의 인종을 요구하는 데에서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된다. 그녀들은 전쟁에서 직접적인 능력의 대결을 통해 아내로서의 인종을 요구하는 남편의 무능을 폭로하고 자신들의 권리(권리를 증대시킨다.

“무서 쇠소술로 장연의 목을 올가 장하의 이르되……장휘 터트 터풀 왈 낙 비
혹 용멸호나 그덕의 가꿔라 쇼쇼 협의로 군법을 텅조호교 가부를 능육호미 잇
지 너조의 도리리오 헛거늘……그덕 비록 나를 초미갓치 너기는 낙 쪽호 그덕갓
흔 장부는 월치 아니호노라 헛고 부소를 지후호는지라(정수정전)”²⁴⁾

“이 때 원수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물아 장검을 높이 들고 과총우를하여 적진을 헤치고 구덕지 머리를 베어 들고 보국을 구하여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할 새……원수 보국을 꾸지져 알 저리하고도 평일에 남자라 하고 나를 업수히 여기더니 언제도 그리 할까 하며 무수히 조롱하더라. (홍계월전)”²⁵⁾

박씨전에서의 갈등은 이시백이 추물이라는 이유로 아내로서 매우 밭기를 원하는 박씨를 구박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박씨의 흥한 모습은 언젠가 벗겨질 것이었는데도 시백은 이를 알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에서 계속 박씨를 구박한다. 몇 년 후 박씨가 허물을 벗고 절대가인이 되자 박씨는 시백의 무능을 탓하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다.

“그대는 안해가 박식이라 하야 삼사년을 천대하atsu니 부부 유별은 이대 잇스
며 고인이 일은 말이 조강지처는 불하당이라 하았는디 그덕는 다만 미식만 생각
하고 부부 간 오륜을 생각지 아니코 엊지 덕을 알며 처자의 심천을 모르고 립신
양명하야 보국안민 할 재조가 있사오리요……첩은 비록 아녀지나 낭군갓흔 남자
는 불워 아니하니이다. (박씨부인전)”²⁶⁾

24) 金東旭 編, 古小說板刻本全集 第三册, p. 58.

25) 全圭泰 編, 韓國古典文學大全集 一3一, p. 396.

26) 東國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編,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卷二, p. 418.

이와 같이 여결소설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갈등은 남편이 아내의 존재 가치를 왜곡하거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데에서 발생하며 아내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립하고 권리(?)를 증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춘풍전」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주색잡기와 출세(?)를 명행시키려는 춘풍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는 춘풍처의 사고가 대립되는 데에 있으며 아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증대시킨다는 것이 갈등의 직접 원인이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수정전」·「홍제월전」·「박씨전」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결을 통해 남성의 무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이 그들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꿈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작품은 남·여의 능력을 비교하여 그 우열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작품의 가치와 창작의도를 바르게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춘풍전」이 유능한 여성을 통해 남성의 무능과 허위를 폭로시키기 위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정수정전」·「홍제월전」·「박씨전」과 같이 여성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과 남성의 능력을 대비시키는 것이 작품전개의 주목적이 되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의 갈등도 아내로서의 권리를 증대시키거나 인정받으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춘풍전」은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춘풍이 작품의 주인공이며 작품 또한 주색잡기와 출세(?)를 명행시키려는 춘풍의 행각을 보여주려는 목적에 의해 전개되고 있고, 춘풍과 춘풍처의 갈등도 아내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춘풍전」은 유능한 여성에 의해 무능한 남성의 허위와 가식을 폭로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며, 춘풍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추적해 보는 데에서 그 진정한 가치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본다.

6. 결 론

문학작품에서 작자의 창작의도를 밝혀보는 일은 작품의 올바른 감상과 비평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고소설에 있어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작품 분석은, 고소설의 대부분이 전기적 수법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는 데에서, 작자의 창작의도를 밝혀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데에 착안하여 이제까지 춘풍처를 통한 윤리규범으로 재단하여 무능과 허위의 인물로 비소화되어 있던 춘풍의 정당한 가치를 확인해보는 데에서 「이춘풍전」의 창작의도를 재검토해 보았다.

기존 업적의 검토에서는 「이춘풍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업적을 개괄하여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춘풍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여 「이춘풍전」이 유능한 여성을 통해 무능한 남성의 허위와 가식을 폭로하는 작품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춘풍전」은 춘풍이 그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느니만치 유능한 여성과 무능한 남성이라는 도식으로서는 작품의 창작의도가 바르게 나타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이제까지 춘풍의 처를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인물로 비소화되어 있던 춘풍의 정당한 가치를 밝혀주는 것이 중요한 작업임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인물의 성격에서는 춘풍의 로맨티스트적인 성격과 춘풍처의 이성적 적극적 성격을 추출하여 보았는데, 춘풍의 로맨티스적인 성격의 가치와 춘풍처로 대표되는 현실에서의 윤리규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가를 살피는 일이 「이춘풍전」 분석에 요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갈등의 전개양상과 의미에서는 춘풍과 춘풍처가 벌이는 갈등의 전개양상을 통해 주색잡기와 출세를 병행시키려는 춘풍의 행위는 비난과 동경의 대상이 됨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춘풍과 독자가 갖는 윤리적 유대관계에 의한 것임에 유의하여 「이춘풍전」은 춘풍과 독자와의 윤리적 동질성이 깨어지는 면과 유지되는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출해 보았다. 그 결과 「이춘풍전」은 모순된 사회질서에 대하여 사회의 윤리규범을 거부하고 주색잡기와 출세를 병행시키려는 한 인물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춘풍의 행위는 그의 로맨티스트적인 성격과 결부되어 「이춘풍전」을 단순히 윤리규범의 도식에 의해 전개시키지 않을 수 있었음을 알아내었다.

이것은 유능한 여성과 무능한 남성이라는 「이춘풍전」에 대한 이왕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능한 여성은 통해 남성의 무능과 허위를 폭로하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여걸소설과 「이춘풍전」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춘풍전」의 창작의도는 유능한 여성을 통해 남성의 무능과 허위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필자의 견해를 검증하여 보았다.